

부산지역 14개 대학, 산업계와 '상생 성장' 생태계 조성

‘LINC 3.0 사업’ 공모 선정 일반대 9개교, 전문대 5개교 6년간 최대 2820억 확보



부산시는 16일 지역 14개 대학이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부산시

부산시는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3단계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3.0) 공모에 부산지역 대학 14개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LINC 3.0 사업은 1단계 LINC, 2단계 LINC+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고도화한 후속 사업으로서 교육부 대학지원사업 중 지원 규모가 가장 큰 산학협력 종합 지원사업이다.

부산에서는 일반대 9개교와 전문대 5개교 등 총 14개교가 선정됐으며, 부산대와 부경대는 기술혁신 선

진해 11월부터 LINC 3.0 지원단을 구성·운영하여 LINC 3.0 사업 평가 지표에 맞춰 유치 지원 전략을 마련하는 등 지역 대학의 공모 선정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부산시, 지역 대학 21곳, 부산상공회의소, 부산테크노파크 간 체결한 업무협약(상생 발전을 위한 지식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공유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식협력 특별자금 신설을 포함해 부산시 산학협력 마일리지 지원방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특화시책 추진으로 지역 대학 혁신과 지역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선정된 14개 대학은 올해 국비 470여억 원 등 6년

간 최대 2820여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선정 대학은 앞으로 LINC 3.0 사업을 통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계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며 공유·협업 체계 및 산학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등 대학과 산업계가 상생 성장하는 산학협력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부산시는 이번 사업 유치를 계기로 대학의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이 기업 성장으로 연계되는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고, 나아가 지역 산업과 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장병호 기자 metrobusan1@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목포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공모

목포시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2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공모한다.

관광두레사업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지역주민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공동체 중심의 관광 관련 사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시작했다. 전통적인 공동체 문화인 '두레'를 '관광'에 결합한 것으로 관광은 비즈니스를 의미하고 두레는 주민사업체를 뜻한다.

공모기간은 오는 6월 13일까지로 서류평가, 온라인 아카데미 및 현장시설, 발표평가 및 종합심사의 등을 거쳐 오는 8월말 최종 선정·발표된다.

선발된 신규 관광두레 주민사업체에는 최장 5년 동안 역량 강화, 컨설팅, 파일럿 사업, 법률·세무 지원, 홍보·마케팅 등이 지원된다. /목포(전남)=양수영 기자

전남 일자리 우수기업 인센티브·인증패 수여

최근 7년간 1325명 고용창출 20개사 인증해 2000만원씩

전라남도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2022년 일자리 우수기업'을 선정해 고용환경개선 자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사업은 고용창출 및 고용환경 개선에 힘쓴 일자리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안정을 이끌기 위한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5년부터 해마다 10개 기업씩 선발해 지원했으며 2019년부터 20개 기업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말까지 총 100개 기업을 선정, 총 1325명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올해는 20개사를 선정해 ▲고용환경개선자금 2000만 원 ▲인증서, 인증패 수여 ▲중소기업 자금지원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사업 선정 시 우대 등 혜택을 준다.

신청대상은 전남에 있으면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이다. 다만 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어야 한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해선 최근 1년간 기업 규모별 신규 일자리 증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은 15명 이상 ▲종업원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5% 이상 또는 5명 이상 ▲종업원 50인 미만 기업은 3명 이상 고용이 늘어야 한다.

전남도는 기업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인증을 준비하도록 현재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신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6일까지 기업이 소재한 시군 담당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영화 '브로커' 메인 예고편 장면. /부산영상위원회

부산 로케이션 영화 3편, '칸' 공식 초청

부산영상위원회는 부산에서 촬영한 영화 세 편(▲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헤어질 결심(감독 박찬욱) ▲헌트(감독 이정재))이 제75회 칸 영화제에 공식 초청됐다고 밝혔다.

영상위에 따르면 이번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한 한국 영화 두 편이 모두 부산에서 촬영을 진행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세계적인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 브로커는 지난해 약 두 달 동안 연산동, 전포동 등 부산 13개 로케이션에서 촬영했다. 국내에서 모든 촬영을 진행한 영화로, 여정의 출발지가 바로 부산이다.

박찬욱 감독의 네 번째 칸 경쟁 부문 진출 영화 헤어질 결심은 2020년부터 2021년 초까지 23개 로케이션에서 촬영을 진행했다. 장소는 부산영화촬영 스튜디오를 비롯해 금정산, 한국해양대학교, 기장 도예촌 등이다. 특히 16개 구·군 중 14곳에서 촬영을 진행해, 부산 전역의 다채로운 모습이 담길 것으로 기대된다.

비경쟁 부문인 '미드나이트 스크린'에 초청된 배우 이정재의 연출 데뷔작 헌트는 지난해 부산에서 가장 오랜 기간, 가장 많은 로케이션에서 촬영을 진행한 작품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기장군, '반딧불이 생태체험' 행사 개최

청정 기장 이미지 제고

부산 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6월 10~14일 5일간 장안사 일원에서 '제7회 반딧불이 생태체험 학습행사'를 개최한다.

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1년도부터 대표적 환경지표 곤충인 반딧불이의 생활사를 관찰·학습하는 체험의 장을 마련하고, 반딧불이의 서식을 홍보해 오염되지 않은 청정 기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이 행사를 추진해 왔다.

이에 앞서 기장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010년 기장군내 반딧불이 서식지 탐사를 통해 밝기가 가장 선명하고 빛이 아름다운 '운문산반딧불이'를

포함해 '늦반딧불이'가 기장의 다수 지역에서 출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반딧불이 체험부스와 포토존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특히 일광욕에 위치한 '극단 가마골 연극팀'과 함께하는 장안사 계곡 탐방로의 구간별 테마 퍼포먼스 공연이 준비돼 있어 반딧불이를 탐사하는 동안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긴장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하루 4회(회당 50명), 오후 8시부터 30분 간격으로 운영되며, 참가신청은 16일부터 기장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내 강좌신청을 통해 선착순 예약 가능하다. /부산=장병호 기자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건립 설계 공모

26개국 122팀 참가

전라남도는 20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 의병의 구국 충혼을 기리고 의병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추진하는 '남도 의병 역사박물관' 국제설계공모에 26개 나라 122팀이 참가등록을 해 국제적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제설계공모 마감 결과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터키, 스페인, 인도 등 해외 건축사 73팀과 국내 건축사 49팀이 참가 의사를 보였다.

2단계로 진행되는 이번 설계공모

는 1단계로 오는 31일까지 접수 작품을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건축계획 및 배치, 전시 콘셉트 등을 심사해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어 세부 설계 등을 2단계로 심사해 8월 30일 당선작을 발표한다.

누구나 찾고 싶고, 가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이번 공모에 해외 건축사를 비롯한 국내 유명 건축사가 대거 참가등록을 한 것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외국인 3명을 포함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전남-양수영 기자

부산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 대표 브랜드 육성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부산시 소상공인 지원 대표 브랜드를 육성한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2022년 부산스타 소상공인 발굴·지원사업' 사업은 지역 대표 소상공인 10개사를 선정해 부산 대표 소상공인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향후 지역 스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대표 소상공인에 선정된 10개 기업은 ▲스타소상공인 인증 ▲성장컨설팅 ▲성장지원금 ▲마케팅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부산=이도식 기자